



부산 <예인선 전복·침몰 사고>와 관련,
'수색대응 부실 및 능장 수사' 보도에 대해
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□ **보도내용** <'26. 9. 8.(화) 00언론>

사고 당시 CCTV 분석 지연으로 사고 직후 표류자 수색방향 설정 지연.
선원 추가 추락 사실 뒤늦은 확인으로 능장 수사 지적

□ **설명 드립니다.**

- 먼저 수색작업 관련입니다. 해양경찰은 예인선 전복·침몰 사고 접수 직후부터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가용 가능한 모든 경비함정, 항공기 및 파출소 구조세력을 현장에 보내 인명구조에 나섰습니다. 또한 군, 관 등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기상 악화에도 수색작업에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수색작업은 사고 초기부터 해상 표류자 인원수와 관계없이 해상 탈출자 및 선내 고립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공기 조명탄 투하 등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신고 직후부터 'AI 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시스템'과 '해수유동예측 시스템'을 반영해 수색구조 구역을 설정, 수색작업 중입니다.
- 다음은 수사 관련 사항입니다. 부산해양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관 41명으로 '티앤에스캐처호 전복 사건 수사본부'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

- 피에인선 M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9.2.(수) 밤 M호의 폐쇄회로(CC)TV, VDR(항해기록장치)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M호를 비롯해 다른 예인선 선원, 사건관계인 등에 대해 순차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수집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9.4(금) A선사 등 6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9.7.(월) 늦은 오후 영장 수령 후 9.8.(화) 오전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.
- 수사 진행 중 지난 9.5.(토) M호의 한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“전복된 사고 선박 주변 해상에 2명이 있는 것을 봤다”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피에인선 M호의 폐쇄회로(CC)TV 화면을 확대해 초 단위로 추가 심층 분석한 결과, 그 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‘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있던 선원 1명’이 해상에 표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
- 부산해양경찰은 해상 표류 실종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검증되자마자 9.7. 오후 가족 설명회를 통해 설명 드렸습니다. 현장 세력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해상 표류자 및 선내 고립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.
- 해양경찰은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. 또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책임관계를 밝혀내는 데 마지막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운영과 홍보계	책임자	계 장	홍성욱 (051-664-2112)
		담당자	담 당	조승원 (051-664-2212)

